

蔡邕과 蔡二郎의 역사적 간극*

강 중 임**

<目次>

I. 들어가는 말	IV. 상상적 역사, 그리고
II. 채옹에 대한 시시비비	문학적 진실
III. 채옹에 대한 대중적 수용과 리텔링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문학가는 어떤 구체적 사건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재구성하여 허구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흔히 역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은 대중이 함께 꾸는 ‘꿈의 역사’로서 이미 현실에서는 역사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여긴다. 대중은 사실과 허구의 이분법을 넘어서 역사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¹⁾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인물이나 사건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 속에서 작가나 대중들의 상상적 허구를 거치게 되고, 그 허구 속에서의 인물이나 사건이 실제 존재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 본 연구는 2014년 동국대학교 DG선진연구강화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팩션 열풍과 스토리텔링의 역사》, 서울: 프로네시스, 2009, 45쪽.

이처럼 고대 역사의 실존 인물이나 사실에 상상력을 덧붙여 재창작된 이야기,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오늘날 픽션(faction)이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픽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로서 漢代 인물인 실존적 蔡邕와 남송 戲文 <趙貞女蔡二郎>과 명대의 희곡 작품 <琵琶記>에서의 채옹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와 픽션의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이 존재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대 희곡인 고명의 <비파기>는 지방희로서의 南戲가 고급화되고, 잡극에 의해 위축되어 있던 세력을 북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대표적인 작품이다. <비파기>는 창작된 이후 일반민중과 문인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 무대공연이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읽는 문학 텍스트로도 명대 이래 끊임없이 출판되어 왔다.

그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지어미의 정절과 효행, 인내와 희생 등의 덕목은 특히 원말 명초라는 혼란한 시기에 반드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바로 그러한 점이 갖 세워진 나라의 안정을 위해 유교의 윤리인 예교를 강조해야했던 명대 정책과 잘 부합되어 황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비파기>의 문학사적인 지위의 중요함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사적 상식 외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비파기>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담고 있다. 그 안에는 과거를 통한 신분상승과 고관들의 데릴사위로 낙점되어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 과거급제자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들, 여성문제 등등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이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비파기> 내용의 유래와 변천양상이다.

<비파기>의 소재는 예로부터 전해지던 효부의 고사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남송시기 '南戲之首'로 일컬어지던 '趙貞女蔡二郎'에서 유래한 것임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조정녀채이랑>²⁾의 채

2) 송대 남희인 <趙貞女蔡二郎>의 원작은 현전하지 않으나, 元初 岳伯川의 《呂洞賓度鐵拐李》 잡극 제2절, 徐渭의 《南詞叙錄》, 경극 <小上墳> 중의 蕭素

이랑은 장원급제 후 조강지처와 부모를 돌보지 않고 승상의 사위가 된 후 조강지처와 부모를 모른 채 하다 벼락을 맞아 죽는 인물이다. 채이랑 고사는 북송 때부터 관련고사가 유전되었고 남희 뿐 아니라 설창·木偶戲·院本으로도 연출되었던 고사로 광범위한 인기를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조정녀채이랑>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채이랑이 <비파기>에서는 모든 행위가 자의외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족을 돌볼 수 없었던 인물로 그려진다. 부인과 헤어져 과거를 보러가고, 승상의 데릴사위가 되고, 관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모두 부모와 승상, 황제의 명에 대한 복종으로 인한 부득이한 선택임이 강조되고 부모와 조강지처를 돌보지 못한 죄책감을 가진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명한 부인의 배려로 조강지처와 다시 만나게 된다는 해피엔딩은 이야기의 전신인 <조정녀채이랑>과 가장 뚜렷이 대비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이야기 속의 채이랑은 동한 시기 실존인물인 蔡邕(蔡伯喈)을 모델로 한 인물로 채옹의 실제 인물 형상과도 매우 다르다. 동일한 인물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르게 조명되고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은 비단 채옹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동일한 인물을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단히 재창작된다. 사실 역사적 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인해 다중적으로 전도되기도 한다. 문학작품과 민간 전설 속에서의 형상, 그리고 역사적 형상 간의 간극이 많이, 심지어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³⁾ 예를 들어 조조, 제갈량, 관우 등이나 무척천, 사마상여 등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들이 한결같지 않게 대중문화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그렇게 묘사된 인물들은 어쩌면 하나의 문화적 기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역사적 인물인 채옹과 허구적 서사 속에서의 채이랑이 보여주는 간극,

貞의 唱詞를 통해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 수 있다.(劉叙武·劉贊, <從南戲《趙貞女蔡二郎》到傳奇《琵琶記》>,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 第21卷 第4期)

3) 劉德杰, <蔡邕研究百年回顧與展望>, 《文學遺產》2011 第4期, 153~154쪽.

그것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간극이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채옹에 대한 시시비비

<비파기>의 남자 주인공이자 後漢시기 실존했던 인물인 채옹(133~192년)의 자는 백개(伯喈)이고 陳留圉(지금의 하남성) 사람이다. 그는 유명한 학자이자 대문호이며 천문, 수학, 陰陽災異에 조예가 깊었고 서화와 음악에까지 재능이 출중했던 인재였다. 그가 맡았던 中郎⁴⁾은 황제의 측근에서 황실을 보좌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삼국시대 주유(建威中郎將)나 제갈량(軍師中郎將)도 각각 중랑의 지위에 올랐었음을 보면 그 직책의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박학함으로 인해 일식이나 지진, 태풍, 해일과 같은 기상이변에도, 매뚜기 떼가 출현하거나 우물에 핏물이 고여도, 오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靈帝는 가장 먼저 그를 찾았다.⁵⁾ 채옹은 또한 後漢의 역사를 정리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밝히 고자 하였을 만큼 나라를 위한 집념이 강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영제는 경서 문자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채옹에게 명하여 낙양의 태학 문전에 석경을 세우게 하였는데 이때 석경의 글씨 역시 채옹이 직접 담당하였고 당시 석경을 구경하거나 모사하러 온 가마가 매일 천여 대에 이르도록 길가를 가득 메웠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⁶⁾ 한때 황제에게 비밀리에 건

4) 한대의 중랑은 九卿가운데 하나로서 五官·左·右 중랑으로 나뉘며, 궁중이나 황제의 출행 시 거마나 가호 등을 통솔하는 직책이다. 예법과 전장제도에 밝아 궁중의 관원이 결원될 경우 충원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직책이다. (陣仲安·王素 著, 《漢唐職官制度研究》, 中華書局, 1993, 8쪽.)

5) 리귀원 지음, 김세영 옮김, 《중국문인의 비정상적인 죽음》, 에버리치홀딩스, 2009, 64쪽.

6) 邕乃自書丹於碑, 使工鐫刻立於太學門外. 於是後儒晚學, 咸取正焉. 及碑始立, 其觀視及摹寫者, 車乘一千餘兩, 填塞街陌. [南朝 宋]范曄, 《後漢書》, 中華書局, 2000, 《後漢書》 1990쪽.

의한 보고들이 정적들에게 유출되어 온 가족이 머리를 깎인 채 朔方(내몽고)으로 유배되었다가 일 년 만에 돌아오지만 수도인 낙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십여 년간 강남에 머물게 된다. 그 후 채옹이 다시 관직에 복귀하게 된 것은 환관 세력이 사라지고 동탁이 권력을 잡은 해(168년)이다. 물론 동탁이 그를 중용하고자 할 때 채옹은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지만, 구족을 멸한다는 동탁의 위협으로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를 부른 지 삼일 만에 세 번이나 관직을 바꿔 올려줄 정도⁷⁾로 동탁은 채옹의 학식과 재능을 존중하여 조정의 중대한 사안들은 항상 채옹에게 초안을 준비하도록 맡겼으며, 연회를 열 때마다 채옹에게 금곡을 연주하게 하여 동탁 정권이 유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과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도 동탁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동탁의 부고를 듣고 애석해하는 채옹의 모습을 본 왕윤은 역적 동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대역죄라고 옥에 가둘 것을 주장하였다. 고지식하고 속 좁은 왕윤은 자유분방하고 재능이 넘치는 채옹에게 질투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차 없이 누명을 씌운 것이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채옹은 그렇게 61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의 죽음으로 사대부들과 유학자 가운데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⁸⁾, 연주, 진류 일대 사람들 모두 채옹의 초상화를 그려 그를 칭송하였다⁹⁾. 어쩌면 채옹은 역사적 지식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재적 문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옹에 관한 시비는 줄곧 존재해왔다. 북송 때부터 관련고사가 유전되었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는데 남송 시기 陸游의 시에도 “죽은 다음에 시비는 가린들 무슨 소용인가, 온 마을이 채중량 이야기 뿐이로구나”¹⁰⁾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본다면 그에 대한 시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야깃거리가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7) 三日之間, 周歷三臺. 《後漢書》, 2005쪽.
 8) 搢紳諸儒莫不流涕. 《後漢書》, 2006쪽.
 9) 兗州·陳留間皆畫像而頌焉. 《後漢書》, 2006쪽.
 10) “身后是非誰管得, 滿村聽說蔡中郞” <小舟遊近村舍舟步歸>

있다.¹¹⁾ <조정녀채이랑>의 희문이 나왔던 시기도 남송시기였음을 고려한다면 남송 시기 채옹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실존적 인물과는 다르게 각색되어 유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그의 인격과 덕행에 관한 문제이다. 채옹의 재능과 애국 충정이 남다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해도 인격과 관련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가 채옹이 동탁의 수하에 들어가 관직을 지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여겨진다. 비슷하게 조조의 경우도 《삼국지》정사에 기재된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실제 형상에 비해 후세에는 과도하게 악화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관객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희곡 공연에서 심지어 조조 배역을 맡은 배우가 몰매를 맞아 죽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대중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한 추론을 가장 정확하게 반증해주는 것은 남송시기의 희문인 <조정녀채이랑>의 이야기이다. 즉 이 이야기에서의 채옹은 장원급제 후 승상의 사위가 되고 고향에 두고 온 조강지처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홀로 시부모를 모시던 조오낭은 극심한 흉년에 부모가 차례로 명을 달리 하자 머리카락을 팔아 장례를 치르고 치마에 흙을 담아 날라 분봉을 쌓고 남편을 찾아 나선다. 남편을 겨우 만났으나 채이랑은 조오낭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 말을 풀어 밭에 치여 죽게 하며, 결국 스스로도 벼락에 맞아 죽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후한서·채옹전》에 따르면 채옹은 모친이 병들었던 삼 년 간을 계절이 바뀌는 때가 아니면 걸옷과 요대를 풀지 않았고, 칠십일 간이나 편히 누워 잠을 잔 적이 없을 정도의 극진한 효자이다. 모친이 돌아가신 후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예법에 따라 살았는데 그 부근을 토끼들이 순하게 노닐고 연리목(連理木)이 자라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보고 가곤 했다.¹²⁾

11) 정의숙, <<비파기>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2장 2절 참조.

그러나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채옹은 병든 모친을 극진히 간호했던 그러나 천 여 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남송의 <조정녀채이랑>과 명대 <비과기>¹³⁾에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가난하고 병든 부모를 외면하는 거의 상반된 인물로 묘사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형상이며, 이처럼 천 여 년의 시간동안 완전히 달라진 그 인물 형상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심지어는 같은 시기 두 명의 채옹이 있었다는 주장¹⁴⁾도 채옹에 대한 사람들의 시비를 방증해준다. 즉 동한시기 같은 이름과 심지어 伯喈라는 자도 똑 같은 두 명의 채옹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탁 수하의 채옹은 진류 사람이고 또 다른 채옹은 上虞 사람인데 후인들, 특히 원말의 고명이 그 둘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한 채 작품 속에 동일인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상우의 채옹에 대해 그야말로 조강지처와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자의 이야기라고 말하며, 고명이 《비과기》 극본 가운데에서 너무나 자신있게 문 앞에서 “소생은 변주 진류사람입니다(小生乃汴州陳留人氏)”라고 말한 것으로 묘사해 두 채옹이 완전히 같은 인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¹⁵⁾ 실제로 明代 廖用賢이 지은 《尙友錄》에는 또한 명의 채옹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상우 지역에 채옹이 있었는데 그 역시 자가 백개였다.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하며 살았는데, 그 효행으로 이름이 났다(時有上虞蔡邕亦

-
- 12) 邕性篤孝，母常滯病三年，邕自非寒暑節變，未嘗解襟帶，不寢寐者七旬。母卒，廬于冢側，動靜以禮。有菟馴擾其室傍，又木生連理，遠近奇之，多往觀焉。
- 13) 물론 《비과기》에서는 <趙貞女蔡二郎>에서의 채이랑처럼 벼락을 맞아죽을 정도의 응보를 받는 負心漢의 형상은 아니며, 모든 상황들이 강압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심지어 조강지처와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조오냥이 홀로 시부모의 장사를 치르고 비과를 타 구걸하며 남편을 찾아갈 때까지 돌보지 않았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14) 魏紹昌, <兩個蔡邕的故事>(《中州古今》, 1998)·劉德杰, <蔡邕研究百年回顧與展望>(《文學遺產》 2011, 第4期)·石靜, <“滿村聽說蔡中郎”溯源>(《尋根》 2009) 등을 들 수 있다.
- 15) 魏紹昌, 앞의 논문, 37쪽 참조.

字伯喈, 隱居不仕以孝行聞)¹⁶⁾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은둔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동탁의 증용으로 삼일 안에 세 번의 승진을 한 진류의 채옹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조정녀채이랑>이나 <비파기>의 채옹이 바로 이 상우의 채옹을 묘사한 것일까? 하지만 효행으로 이름을 알렸다는 부분은 진류의 채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만일 동명이인인 상우의 채옹을 진류의 채옹으로 착각하여 작품 속에 묘사했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의 불명확한 인식으로 《비파기》의 채백개가 진류의 채옹으로 잘못 묘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시기에 ‘백개’라는 자까지도 동일한 다른 지역 출신인 두 명의 채옹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¹⁷⁾,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후인들의 작품 속에서 상반되게 묘사된 채옹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가장 유력한 이론처럼 결국 송대 이후 희곡 작품 속에 묘사된 中郎 채이랑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탁의 죽음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진류의 채옹이라고 볼 수 있다.

후한의 채옹에서부터 <비파기>의 채백개에 이르기까지 채옹에 대한 시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채옹이라는 인물 자체의 옳고 그름을 비롯해서 <비파기>에서의 채이랑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인지의 여부¹⁸⁾ 등

16) [明]廖用賢 贊, 《尚友錄》 卷18, 남경대학교 소장 전자판, 2113쪽.

17) 이와 같은 사실은 《中國歷代人名大辭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2444 쪽에도 기재되어 있다.

18) 예컨대 王世貞(1526~1590)이 《藝苑卮言》에서 채옹의 당대 승상 우승유의 아들 우번의 친구인 蔡生을 누이동생과 결혼시킨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희극화 한 것이라 하였고, 鉅璣(1681 전후)는 우승유의 아들 우울의 친구인 鄧敞을 누이동생과 결혼시킨 이야기라 하였다. 《毛德音評琵琶記》에서는 고명의 친구 王四의 실제 이야기를 풍자하여 쓴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梁紹壬(1792~?)은 《兩般秋雨齋隨筆》에서 許宗彥(1768~1818)의 말을 인용해 蔡卞이 본처를 버리고 왕안석의 딸에게 장가들었음을 풍자하여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학주, 《중국의 희곡과 민간 연예》, 명문당, 2002, 182~184쪽 참조)

채옹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비를 넘어 중요한 것은 채옹과 관련된 민간에 유행하던 전설이 여러 단계, 오랜 시기를 거쳐 재창작 되었다는 점이다.

Ⅲ. 채옹에 대한 대중적 수용과 리텔링

천 여 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문학 작품 속에 마치 다른 인물처럼 묘사된 형상의 배후에는 분명 전설이나 문학 작품을 향유하던 대중들의 취향이나 시대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즉 채옹이 지닌 실제 인물과 <비파기>창작 이전 민간에 떠돌던 부정적 형상의 채이랑, 그리고 <비파기>에서의 채옹이 다르다는 사실은 곧 채옹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예컨대 《毛德音評琵琶記》에 李贄의 말을 인용하여 ‘전설에 의하면 東嘉가 비파기를 지을 때에 처음에는 채중량이 불충불효한 인물이었다. 뒤에 꿈에 중량이 나타나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저의 행적을 옳게 고쳐주시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꿈을 깨자 곧 그를 全忠全孝한 인물로 바꾸었다 한다’라고 하였다¹⁹⁾는 언급을 보면 역사적 간극을 해석하는 너무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간극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인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충절이다. 채옹의 경우 동탁에게 귀의한 것이 아마도 그 형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채옹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조 송나라의 范曄은 《후한서》에서 채옹을 뛰어난 경학가이기도 하지만 馬融이 梁冀의 발탁을 받아들인 것처럼 권신에게 영합하여 자신의 절개를 훼손한 인물²⁰⁾로 여겼다. 그러나 마옹을 대하는 조롱 섞인

19) 김학주, 앞의 책, 186쪽에서 재인용.

시선과는 달리 채옹에게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자신을 중용한 동탁의 은혜를 잊지 않은 의리있는 사람으로 보아 동정어린 평가²¹⁾도 잊지 않았다. 또한 범엽은 채옹의 행위가 죽임을 당할 정도는 아니나 그가 지은 역사서가 후세에 길이남아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염려해 죽인 것이라고 하였다. 남조시기 많은 문인들이 채옹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채옹과 같은 선택을 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남북조 후기에 顏之推는 《顏氏家訓·文章》에서 채옹의 변절을 “못된 사람과 함께 하다가 주벌을 당한(同惡受誅)”²²⁾ 것으로 여겼다. 송대에 이르러 이학이 흥기하고, “천리를 남겨두고, 인욕을 없애야 한다(存天理, 滅人慾)”²³⁾는 사상이 사인들 사이에 만연함으로써 <조정녀채이랑>에서 배은망덕하고 불충불효한 인물로 묘사된다. 어쨌든 채옹의 인물에 대한 평론에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학술사상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유가사상을 고수했던 명청시기에도 여전히 채옹에 대한 조롱과 醜化는 계속되었다.²⁴⁾

우리가 충절을 지킨 문인으로 伯夷와 叔齊, 介子推, 屈原, 嵇康, 文天祥 등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절대적인 신념을 가졌었고, 그것을 위해 죽음도 불사했기 때문이다. 공리를 멀리하는 것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았던 지식인들은 군자의 도의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 물론 오랜 세월 억압된 욕망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로 인한 병태적 인간과 병태적 생활이 속속 모습을 드러나기도 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채옹의 선택은 사실 매우 인간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중국 고대 문인들, 더 나아가 민중들의 인식 속에서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설령 채옹을 바라보는 그들 자신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채옹의 입장을 애써 변호하려고 했던 《비파기》의 작가 고명은 상

20) 籍梁懷董, 名澆身毀. 《後漢書》, 2008쪽.

21) 屬其慶者, 夫豈無懷. 《後漢書》, 2007쪽.

22) [北齊] 安之推, 임동석 역주, 《顏氏家訓》, 고즈원, 2004, 218쪽.

23) 聖人千言萬語只是教人存天理, 滅人欲.(《朱子語類》卷四)

24) 石靜, 앞의 논문, 108쪽 참조.

당히 넓은 포용력을 가진 문인이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제도로서의 과거제이다. 채옹에 대한 이야기의 다양한 윤색은 시대적으로야 먼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사실과 상상력의 결합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현재 문화계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팩션 장르와 닮아 있다. 그 배경에는 윤색의 주체인 문인 혹은 사인들의 사고방식, 공연예술이었던 희곡작품을 보고 들었던 민중들의 인식과 함께 그 시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사회제도나 문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상상력은 현실에 그 뿌리를 둔다. 채옹이 등장하는 배은망덕한 이야기가 읽는 이들의 혹은 보고 듣는 이들의 공분을 사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후인들의 현실과 매우 가까운 과거제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채옹은 매우 박학하고 범상치 않은 많은 재능이 있었다. 동한 영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또 삼일 동안 세 번이나 관직을 바뀌가며 동탁의 중용을 받았던 관직에 있어서만은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다. 게다가 그가 살았던 동한 시기에는 과거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던 때²⁵⁾였으므로 과거제로 야기되는 배은망덕은 그다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정녀채이랑>와 <비파기>의 전반적인 줄거리에서 과거제는 갈등을 야기하는 직접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하경심은 兪爲民의 분석을 참고하여 송대 진사과의 급제자수가 당대에 비해 증가하였고, 일시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고관들의 데릴사위로 낙점되어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이 빈번했으며, 이것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시대 상황을 그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남송대에 강남일대에 과거 급제자가 집중되고 특히 남회의 발생지역인 溫州의 급제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생

25) 현대에는 지방 관원이 수시로 필요한 인재를 찾고 살펴서 중앙 정부에 추천하는 제도인 察舉제도가 시행되었다. 考察과 추천은 관리 임명 자격을 노정하는 수단으로 이전의 방법에 비해 훨씬 과학적이었지만 그러나 여러 지방 관원들의 견식이나 안목이 일정치 않아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았다.

각되며, 그에 따라 발생한 억울한 사건, 사연들이 자연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라고 보았다.²⁶⁾

과거제가 시행된 후 중국의 남자라면 그 누구라도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시험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는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과거시험에 매달려야 했다. 당대에 “五十少進士”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나이 50세에 진사가 되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다수 지식인들은 거의 평생을 과거시험에 급제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⁷⁾ 즉 중국 고대의 지식인들이 일생동안 현실에서 조우하고 실천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급제한 자는 예컨대 그 집안 전체가 조세와 부역을 면제받았을 뿐 아니라 사인으로서의 영예와 사회적 존경, 그리고 아주 다양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만큼 그것으로 인한 보상심리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 실제로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만큼 폐단도 심했다. 《唐摭言》 권2에 실린 王泠然的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던 중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 가운데 당시 御使로 재직하고 있던 高昌宇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바라건대 어사께서 금년에는 저를 위해 아내감 하나를 찾아주고, 내년에는 신경써서 관직 하나를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그럴만한 여력이 있으시니 어찌 사소한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오래된 서운함으로 입속에만 담아두고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면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귀인은 잊어버리는 것이 많고 國士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만약 제가 하루아침에 뜻밖에 출세하여 당신과 臺閣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결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공

26) 하경심, <중국 전통급 제제의 변용에 관한 一考>, 《중국어문학논집》 제42호, 2007, 256쪽 참조.

27) 위치우위, 《천년의 정원》, 미래M&B, 2003, 355쪽.

이 그제서야 후회하며 저에게 사과한들 제가 어찌 당신에게 좋은 안색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야에서 나고 자란지라 말이 진실로 거슬립니다. 아울러 시 몇 수를 함께 보냅니다. 따로 사흘 뒤에 찾아갈 테니 그때는 예전의 눈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²⁸⁾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御使의 자리에 있는 선배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특별한 문장 뒷면에 숨어 있는 사회적 보편성이다.²⁹⁾ 아마도 이러한 심리태도는 이미 하나의 관행이 되어 사회적으로 묵인되었을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양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부조리는 매우 심각했을 것이며, 후대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해졌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문벌 귀족의 자제가 아닌 수많은 문인들이 신분 상승을 기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출로가 과거급제와 문벌집안과의 혼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당시에 권문세가에서 과거에 급제한 자들 가운데 골라 딸을 시집보내고자 했으며, 만일 급제하기 전이라면 급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아예 미리 혼인을 정하기도 했다. 선비들 가운데는 출세를 위해 자신의 원칙에 위배 되는 일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결혼을 했음에도 다시 혼인을 하는 경우도 아주 흔했다.³⁰⁾ 당대 재자가인류 전기소설에 과거를 보고자 하던 문인과 과거에 합격한 남자에게 버림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매 조대마다 중국 고대 정치가들이 어렵게 고안해 낸 과거제도도 그 전개방식에서 심각한 난조를 띠면서 처음부터 사회심리의 惡果를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³¹⁾

그렇다면 채옹의 이야기가 후인들에 의해 회자되면서 채옹 본인의 이력

28) 王定保 지음, 김장환 옮김, 《唐摭言》 上, 학고방, 2013, 127쪽.

29) 위치우위, 같은 책, 354쪽.

30) 程薔·董乃斌, 《唐帝國的精神文明》,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345~360쪽 참조.

31) 위치우위, 같은 책, 355쪽.

과 전혀 상관없이 과거제라는 중요한 장치를 더하게 된 이유는 이제 너무 분명해졌다. 작가는 문학을 통하여 세계를 드러내는(폭로하는) 것이고, 우리가 작품을 판단하는 데 의거하는 법칙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우리 자신³²⁾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채이랑의 이야기에 덧붙여진 과거제는 너무나 큰 영향력으로 처자식과 부모, 심지어 사인들 스스로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필요악으로서의 과거제도에 대한 항변이었을 것이다.

IV. 상상적 역사, 그리고 문학적 진실

역사적 실존인 채옹과 문학 작품 속에서의 채옹의 이야기가 역사적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채옹의 이야기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 당시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채옹은 효행으로 사적에 이름을 남겼으나 그의 효행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벼락에 맞아 죽을 만큼 아주 큰 죄를 지은 負心漢으로 만들었다. <趙貞女蔡二郎>의 채이랑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사람들은 원래 채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배은망덕하고 과거제로 인한 악과의 전형적 캐릭터로서 채이랑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반면 부덕을 잘 지키던 조오냥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채이랑의 이야기는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팩션³³⁾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와 허구의 조합이라는 의미의 팩션이 만들어 내는 것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주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움을 일반 대중들이 열렬히 호응한다는 사실도 내포한다. 팩션은 역사 인식의 중요성

32) 장 폴 사르트르 저, 김봉구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7, 32~50쪽 참조.

33) 팩션은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일대기에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말이다.

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화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두 가지의 조합에 역사가 주된 것인지, 허구가 주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일고 있다. 예컨대 팩션이라는 장르에 대해 논의한 김기덕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사실체계가 형상화될 때 대중적 몰입감은 높아진다고 하였고 따라서 팩션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맥락에서 제작될 때 대중적 몰입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⁴⁾ 즉 사실과 허구의 조합 가운데에서도 특히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이랑의 이야기를 만들고 접했던 중국 전통시기의 대중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채이랑의 이야기를 수용했던 대중들의 관심은 그들이 처한 현실과 깊이 닿아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당대 이후 과거제도를 둘러싼 지식인들의 병태적인 심리나 사회적 현상들이 송대에는 더 극심해졌을 것이고, 현대사회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출로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거제도가 양산해 내는 사회적 문제는 이미 어떠한 원칙도, 인간적 도의도 넘어선 것이었다. 채이랑의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닌 오히려 그 당시의 현실과 매우 가깝다. 따라서 자신의 영욕을 위해 지켜야 될 자식과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이랑의 비극적인 결말을 통하여 과거제도에 대한 처절한 복수와 통한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과기>에서의 채백개와 조오낭의 결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어떠한 동기에서이건 과거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비슷하지만 결말이 전폭적으로 수정되었다. 부모의 명과 상관의 명, 황제의 명을 거스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우승상의 여식과 결혼을 한 것에 동정어린 시선으로 묘사하였다. 게다가 우부인의 관대함으로 우여곡절 끝에 만난 조오낭과 같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대단원을 맞게 된다. 결국 매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흔하다 할지라도 도의에 벗

34) 김기덕, <팩션영화의 유형과 ‘대중적 몰입’의 문제>, 《역사문화연구》 2p 34집, 2009, 461쪽.

어나는 일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비파기>가 쓰여진 당시는 지어미의 정절과 효행, 인내와 희생 등의 덕목이 원말 명초라는 혼란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을 부각시키기에 채백개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은 오히려 작품 전개에 유익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도의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천벌을 받지 않고, 매우 바람직한 결말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부모와 상관, 그리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던 채백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또한 바로 그러한 점이 갓 세워진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덕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전통시기의 문학작품 혹은 희곡 공연을 접했던 대중들, 그리고 街談巷說과 道聽塗說을 만들어내던 대중들은 현대의 프로슈머³⁵⁾와 같은 존재들이다. 사람들은 절대 있는 그대로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을 상상하며, 또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말이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인류의 공통된 문화현상이다. 아주 흔한 예로 《삼국지》와 <삼국지연의>가 그러하고, <앵앵전>과 <서상기>의 관계가 그러하다. 정사 《삼국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이 <삼국지연의>에 묘사되어 있고, 조조나 관우, 제갈량 등 주요 인물들의 성격도 후인들의 의도에 달라진다. 장생에 대한 앵앵의 뒤끝없는 결별이 <서상기>에서는 가족주의를 표방하는 작가적 선언과 함께 혼인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이 된다. 물론 작품은 문인들의 개인적인 창작이지만, 그것을 읽고, 듣고, 보는 사람들은 역시 생

35)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provider)와 소비자(consumer)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신조어이다. 이는 Toffler가 제안한 말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다시 생산자가 되는 환경을 말한다. 프로슈머의 개념은 경영학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방면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프로슈머가 지닌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라는 개념은 영화, 연극, 대중가요 등 대중문화 방면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에서 판매하는 유형의 상품 뿐 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인 대중매체나 대중문화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생산되는 추세를 말한다. (윤유경·채지영, <대중문화의 심리학적 접근과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호, 2005, 73쪽 참조)

산에 참여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설령 문인 작가가 창작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읽혀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의도적으로 구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일 독자의 취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작품이 문학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실존이 대중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매우 긴밀하게 작용하면서 부단히 재탄생 하는 것은 21세기 현 시점에서 사극 열풍이 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또 그 지속 이유도 대중의 욕구와 관련된다. 제도권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역사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 대중은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논증하는 딱딱한 역사보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역사를 원한다. ‘부드러운’ 역사를 통해 대중은 사실과 허구의 이분법을 넘어서 역사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즉 역사적 상상력이란 사료적 사실 너머로 역사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기능을 한다.³⁶⁾ 마치 채옹이라는 실존인물을 뛰어넘는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 사람들이 중국 문인들의 역사를 지배했던 거대한 괴물로서의 과거제도를 다시 한 번 사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물며, 채옹의 효성에 감복해 토끼들이 유순하게 옆에서 놀고, 연리지가 초막 옆에 자라났다는 정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중국의 역사 기록은 다분히 환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과거가 실재라면 역사는 곧 이야기, 곧 서사라는 견해³⁷⁾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후인들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채옹의 움막 옆에 과연 정말 그런 기현상들이 일어났을 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대중들에게 줄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은 당연히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채옹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될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던 채옹의 모습은 말할 것 없이 역사적 사실이다. 적어도 正史가 주는 신뢰와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기

36) 김기봉, 앞의 책, 45쪽.

37) 김기봉, 앞의 책, 21쪽.

때문이다. 그러나 후인들이 꾸며놓은 채옹의 이야기 역시 독자들의 공감을 일으킨다. 물론 여기에는 인물 자체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고 사건 만이 남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채옹이 겪지 않았던 과거체도로 인해 생겨난 많은 불의와 배반이 남게 되지만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것은 어느 다른 현실보다도 더 절박한 일이라는 것이다. “역사 글쓰기가 과거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 반면, 허구는 그 자신의 서술 상 절박한 요구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들어낸다”³⁸⁾는 루샤오핑의 언급은 이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조오낭과 채이랑의 이야기에는 과거체도와 관련된 적어도 그 당시의 보편인식이 담겨있다. 그 이야기는 역사는 아니지만 집체심리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집체심리는 당연히 진실한 것일뿐더러 때로 역사적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³⁹⁾

V. 맺는 말

중국문학사에서 <조정녀채이랑>와 <비파기>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조오낭의 지극한 효행과 지아비에 대한 절개를 언급하곤 한다. 쌀겨를 먹으면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장사를 지내고 치마에 흙을 담아 홀로 시부모의 분봉을 만드는 효부의 형상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채옹의 형상에 중점을 두었다. 《후한서》에 기재된 채옹과 허구적 서사인 <조정녀채이랑>와 <비파기>속에서의 채옹이 보여주는 간극, 그것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간극이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38) 루샤오핑 지음,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217쪽.

39)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위치우위의 중화를 찾아서》, 미래 M&B, 2010, 45쪽 참조.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팩션인 채옹의 윤색된 이야기는 여느 팩션 장르가 그러하듯이 역사와 허구의 조합이라는 의미와 함께 일반 대중들이 열렬히 호응한다는 사실도 지니고 있다. 즉, <조정녀채이랑>에서는 자신의 영욕을 위해 지켜야 될 자식과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이랑의 비극적인 결말을 통하여 대중들의 과거제도에 대한 처절한 복수와 통한이 드러나 있다. 또한 <비파기>가 쓰여진 시기는 지어미의 정절과 효행, 인내와 희생 등의 덕목이 원말 명초라는 혼란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을 부각시키기에 채백개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은 오히려 작품 전개에 유익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그렇게 도의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천벌을 받지 않고, 조강지처와 해로하게 된다는 매우 바람직한 결말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부모와 집권자, 그리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지 못했던 채백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실존이 대중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매우 긴밀하게 작용하면서 부단히 재탄생 하는 것은 대중의 욕구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채옹과 채이랑 이야기가 보여주는 역사적 간극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이야기 속에 이미 과거 사실은 없지만 그 꾸며진 이야기가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과거제로 양산되던 세태가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또 새로운 왕국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그 세태가 얼마나 인간적일 수 있는지 말이다. 창작 당시의 보편적 인식을 담아내고, 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이들 팩션은 어쩌면 역사적 진실보다 더 의미있는 것일 수도 있다.

<References>

1. [Nanchao Song] Fan, Ye, *History Of the Later Han*, Beijing: Zhong Huashuju, 2000.
2. [Ming] Liao, Yong-xian, *Shang You Lu(《尙友錄》)*, Electronic

- document in Nanjing University Library.
3. [BeiQi] Yan, Zhi-tui, translated by Im, Dong-Seok, *Yan-Shi-Jia-Xun* 《顏氏家訓》, Seoul: Godswin, 2004.
 4. [Song] Zhu, Xi, proofread by Zheng, ming, *Zhu-Zi-Yu-Lei* 《朱子語類》,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Hefei: Anhui educational chubanshe, 2012.
 5. [Tang] Wang Ding-bao, translated by Kim, Jang-huan, *The Collected Statements in Tang China*(《唐摭言》), Seoul: hakgobang, 2013.
 6. Kim, Ki-Bong, *History Telling*, seoul: Phronesis, 2009.
 7. Chen, Zhong-an·Wang, Su, *The System of Public Office in Han·Tang China*, Beijing: ZhongHuashuju, 1993.
 8. Cheng, Qiang·Dong, Nai-bin, *Moral civilization of Tang Dynasdty*,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1996.
 9. Li, Guo-wen, translated by Kim, Sea-young, *Abnomal death of intellectuals in China*, Seoul: EverRich Holdings, 2009.
 10. Kim Hak-Zu, *Drama and Private entertainment of China*, Seoul: Myungmundang, 2002.
 11. Yu, Qiu-yu, *a collection of essays at a mountain retreat*, Seoul: Mirae Media & Books, 2003.
 12. Yu, Qiu-yu, *Looking Chinese*, Seoul: Mirae Media & Books, 2010.
 13. Jean-Paul Sartre, translated by Kim, Boong-gu, *What Is Literature*, Seoul: Moonye Publishing, 1987.
 14. Lu, Shao-peng, translated by Cho, Mi-won·Park, Kye-hwa·Son, Su- young, *From history to fiction*, Seoul: Gil Publishing, 2001.
 15. Chung Eui-sook, “A study on <Pipa>”, A doctoral dissertation of Sung KyunKwan University, 1995.
 16. Hah Kyung-shim, “A Study on the Variation of the Subject Matter in Chinese Classical Drama”, *The Society for the Research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42, 2007

17. Kim Ki-duk, "Faction Film Genres and the Question of Mass Immersion",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Vol. 34, 2009.
18. Yoon, You-kyung·Chae, Jee-Young, "A Psychological Approach to Mass Culture for Investig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11, 2005.
19. Liu, Xu-wu·Liu, Yun, "From Nanxi Chaste Women Zhao and Erlang Cai to Chuanqi The Story of Lute", *Journal of Wenzhou University·Social Sciences*, Vol.21, 2008.
20. Liu, De-jie, "Century Review and Prospects of study on Cai Yong", *Literary Heritage*, 2011 Vol.4.
21. Wei, Shao-Chang, "Story of two Cai Yong", *Zhongzhou Today & Yesterday*, 1998 Vol.5.
22. Shi, Jing, "Trace of Talking about Cai Zhonglang in the town", *Root*, 2009.

<참고문헌>

1. [南朝 宋]范曄, 《後漢書》, 中華書局, 2000.
2. [明] 廖用賢 贊, 《尚友錄》 卷18, 남경대학교 소장 전자판.
3. [北齊] 安之推, 임동석 역주, 《顏氏家訓》, 고즈윈, 2004.
4. [唐] 王定保 지음, 김장환 옮김, 《唐摭言》上, 학고방, 2013.
5. [宋] 朱熹, 《朱子语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12.
6.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팩션 열풍과 스토리텔링의 역사》, 프로네시스, 2009.
7. 陣仲安·王素 著, 《漢唐職官制度研究》, 中華書局, 1993.
8. 程薈·董乃斌, 《唐帝國的精神文明》,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9. 리귀원 지음, 김세영 옮김, 《중국문인의 비정상적인 죽음》, 에버리치 홀딩스, 2009.
10. 김학주, 《중국의 희곡과 민간 연예》, 명문당, 2002.
11. 위치우위, 《천년의 정원》, 미래M&B, 2003.
12.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위치우위의 중화를 찾아서》, 미래M&B, 2010.
13. 장 폴 사르트르 저, 김봉구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7.
14. 루샤오핑 지음,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15. 정의숙, <<비파기>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16. 하경심, <중국 전통극 제제의 변용에 관한 一考>, 《중국어문학논집》 제42호, 2007.
17. 김기덕, <팩션영화의 유형과 ‘대중적 몰입’의 문제>, 《역사문화연구》 제34집, 2009.
18. 윤유경·채지영, <대중문화의 심리학적 접근과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호, 2005.
19. 劉叙武·劉贊, <從南戲《趙貞女蔡二郎》到傳奇《琵琶記》>,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 第21卷 第4期.
20. 劉德杰, <蔡邕研究百年回顧與展望>, 《文學遺產》, 2011, 第4期.
21. 魏紹昌, <兩個蔡邕的故事>,《中州古今》, 1998, 第5期.
22. 石靜, <“滿村聽說蔡中郎”溯源>, 《尋根》, 2009.

<Abstract>

In modern perspective, a kind of faction of CaiYong(蔡邕), a Han Dynasty's character has the factor of other faction genres in which it is

a combination of history and fiction and the public is enthusiastic about it.

Some one thousand years later, ZhaozhenbuCaierlang(趙貞女蔡二郎)> in NanSong(南宋) Dynasty, shows the desperate vengeance and grief of the public through the tragic conclusion of Caierlang(蔡二郎), who has abandoned his duty as a son and a husband for his own glory.

Also, the time when the Pipaji(琵琶記) was written was chaotic when the Yuan(元) Dynasty faded and the Ming(明) Dynasty started so the housewives' fidelity, filial behavior, patience and sacrifice was essential and to etch the situation, the inevitable actions of Caivojie(蔡伯喈) did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ing of paragraph. Additionally, even though Caivojie let down the morality, the desirable end he faced conveys a message that it was a proper award to Caivojie for he could not disobey his parents, authority and the Emperor.

Accordingly, we make a conclusion that reproducing of the historical facts closely interacting with the public's freewheeling imagination is related with the public's desires.

This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of historical drama of Cai-Yong and Cai-Erlang. The factual history does not exist in the story,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fictional story has an apparent effect.

It is that the mass production of gwageo can be extremely inhuman and also how it could be desperately humane when used to make order for the new dynasty. These factions that include general cognizance and was enthusiastically popular might be more meaningful than the historical truth.

Key Words : 채옹(Cai Yong), 채이랑(Caierlang), 채백개(Caibojie),
<조정녀채이랑>(ZhaozhennuCaierlang), <비파기>(Pipaji),

역사(history), 팩션(faction), 역사적 간극(historical gaps),
대중인식(public acceptance), 상상(imagination), 문학적
진실(Literary truth)